

호남 이어 충청도 정권교체 열망...문재인 독주체제 굳혔다

文, 민주당 충청 경선도 압승

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면서 ‘문재인 대세론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

2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문 전 대표는 47.8%로 과반에 가까운 득표에 성공하면서 누적득표에서도 과반을 유지하며 압도적 선두를 달렸다.

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독주 체제를 굳히면서 사실상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만으로 대선후보에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.

호남권 경선에서도 보여줬듯 충청권 표심도 정권교체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승리를 안기면서 대연정을 주장해 온 안 지사를 위협했다.

안 지사는 영남권 순회경선과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수도권 순회경선에 집중, 역전을 노리겠지만 격차를 줄이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. 무엇보다 안방인 충청에서 문 전 대표를 잡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안 지사는 이번 패배가 누구보다 가슴이 아를 것으로 보인다.

◇문재인 잇따라 압승=문 전 대표는 호남경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둬 대세론을 더욱 공고히 했다. 누적 득표율만으로도 2위 안 지사의 득표율에 두배 이상인 55.9%다. 더욱이 다음 경선 지역이 문 전 대표의 고향인 영남에서 2.3위 후보들의 역전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. 선거인단 규모만으로도 충청권은 15만명, 영남권은 23만명 수준으로 영남이 훨씬 많다.

◇충청 표심 얻은 이유는=문 전 대표가 안 지사의 뒷발인 충청권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한 것은 야권의 뒷발인 호남권에서의 압승으로 인해 충청권의 표심도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.

조직력 싸움도 安·李 앞질러

안희정 안방 패배 ‘뒤집기’ 역부족

별다른 변수 없어 맥빠진 경선 될 수도

‘될 사람 뽑아야 한다’는 표심이 호남권에서부터 나타나 충청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. 그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.

조직력 싸움에서도 안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앞질렀다는 분석이다. 적극 투표층인 진성당원 대부분이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만큼 대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.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전 등의 현역의원들이 문 전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고, 민심의 최전선인 지방의원들마저도 문 전 대표의 세 확장에 나서면서 안 지사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충청권에서도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.

◇맥 빠진 경선 되나=문 전 대표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던 충청권에서마저 승리하면서 과반 득표를 통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정치적 안팎의 전망이다. 남은 경선이 영남과 수도권인 만큼 별다른 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.

영남의 경우 문 전 대표의 강세지역이 분명하고 선거인단 규모도 충청권보다 8만여명이 많아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
물론, 문 전 대표에게 지나치게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민주당 전체적인 대선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전략적으로 안 지사와 이 시장에 표를 몰아주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. 그렇더라도 역전을 기대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 분석이다.

/한국지방선문학회 공동취재단=박지경 기자 대전일보 인성준 기자



29일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충청권 순회투표에서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손 필침막과 풍선 등을 흔들며 ‘문재인’을 연호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경선 3연속 압승...‘安風’ 탄력받나

박지원 ‘文·安 1대1 대결서 오차범위...이것이 민심’

국민의당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안철수 전 대표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.

안 전 대표는 지난 25일 첫 관문인 광주·전남·제주 경선에서 60% 득표율을 넘긴 것을 시작으로 26일 전북, 28일 부산·울산·경남 경선까지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대세론을 확정지은 상황이다.

이에 따라, 안 전 대표 측은 부산, 경남에 이어 대구·경북 등 영남에서의 ‘안풍(安風·안철수 바람)’ 일으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.

안 전 대표는 29일 대구와 안동, 영주 등 대구·경북(TK) 지역에서 총총한 일정을 소화하며 바닥 민심을 훑는 데 매진했다.

30일로 예정된 대구·경북·강원 지역 경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본선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당세가 취약한 영남지역 표심 잡기에 일찌감치 나선 행보로 해석된다.

안 전 대표는 동시에 야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‘1대1 대결구도’를 부각시키고 있다. 자신이 문 전 대표를 꺾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.

안 전 대표는 이날 안동 방문에서 최근 문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안 전 대표의 호남 경선 압승을 두고 ‘보조 타이머 격으로 지지해준 것’이라고 평가 절하한데 대해 ‘본인들이 패(廢)타 어렵고 자백하는 것 아니겠나’라고 질타했다.

평소 안 전 대표 어법을 고려하면 흔치 않은 강한 비판이며 영남 지역에 깔린 반문(반문재인)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.

한편,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9일 “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우리당(안철수)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일대일 구도 시 오차범위 내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”면서 “이것이 국민의 민심”이라고 말했다.

박 대표 거론한 여론조사는 조원씨앤이와 쿠키뉴스가 지난 28일 전국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양자 대결 구도 시 문 전 대표가 44%, 안 전 대표가 40.5%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.(표본오차 95%, 신뢰수준 ±3.1% 포인트,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)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!!

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-번지 1층
Tel. (062)234-3222 Fax. (062)234-3141

NAVER **조이투어** 검색

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

조이투어
JOY TOUR CO., LTD

http://www.joytour.kr

대표이사 최금환

봄특선 벚꽃구경~ 무안에서 떠나세요!

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~

관광·휴양·온천·체험·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~!!

일본여행/국내·제주여행/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.joytour.kr

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“봄” 상품 [매주 금요일 출발/3월 31일~6월 4일]			
〈북큐슈 정통〉	벵부·유후인·후쿠오카·기타큐슈	1인	579,000원~
★한정특가★	3/31, 4/14 북큐슈 여행	1인	499,000원~
〈아마구치 정통〉	아마구치·하기·시모노세키·기타큐슈	1인	799,000원~
〈우레시노 정통〉	우레시노·가라초·후쿠오카·기타큐슈	1인	799,000원~
〈골프상품〉	기타큐슈 골프	1인	999,000원~
※ 골프상품 인센, 단독은 문의바랍니다. ※ 4/28, 4/30, 5/3, 5/5은 플른워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.			
항공/선박 편도 북큐슈 “봄” 상품 [매주 일·화·수요일 출발/4월 2일~6월 6일]			
〈일요일 출발〉	3박4일 항공 + 선박 (선착순 한정 30명)	1인	399,000원~
〈화요일 출발〉	3박4일 선박 + 항공	1인	499,000원~
〈수요일 출발〉	2박3일 선박 + 항공	1인	399,000원~
〈올레길〉	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	매주 수요일 출발	1인 399,000원~
〈항공/선박〉	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	1인	799,000원~
무안 → 다낭 전세기 “봄” 상품 [매주 수·토요일 출발/4월 19일~6월 24일]			
1. 항공 + 에어텔		1인	749,000원~
2. 다낭·호이안·후에		1인	799,000원~
3. 다낭·후에·밧마·호이안트레킹		1인	849,000원~
항공·선박 왕복 제주도 “봄” 상품 [매일 출발/3월 24일~7월 20일]			
〈광주〉	제주도 웰빙여행	1인	299,000원~
〈목포〉	선박왕복 제주도 여행	1인	189,000원~
※ 제주상품은 식식 2회,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.			

*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,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. [등록번호 제2003-1호] 이렇다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**조이투어**

● 동행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, 여행지보험 가입(해외상품:여행, 국내상품 5천만원), 관광진흥개발기금, 공항 및 부두 이용료, 유류할증료 포함 ● 교통편 : 항공 및 선박, 전철버스/전지역 ●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●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/ 여행금제 가입업체 ● 예약시 개인서(취소규정)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● 경비(항공료, 기차/기타교통사료, 선착순관광, 각종 비자비용 별도) ● 최소 출발인원 : 상품에 따라 다름

은 몸 던진 ‘동백의 비움’을 배우자

(180) 동백

한희원 작 ‘꽃잎’

“여자에게 버림받고/살얼음 낀 선운사 도랑 물줄/맨발로 건너며/발이 아리는 시린 물에/이 악물고/그 까지 사랑 때문에/그 까지 여자 때문에/다시는 울지 말자/눈물을 감추다가/동백꽃 붉게 터지는/선운사 뒤 안에 가서 영영 울었다” <김용택 작 ‘선운사 동백꽃’>

‘아직 일러 피지 않은’ 동백꽃을 노래한 미당 서정주 시인 탓에, 동백꽃만 보면 우리들 마음은 어느새 선운사를 향한다. 이 땅의 슬한 서정 시인들도 일찍이 미당을 따라 동백꽃을 보러 선운사 골짜기로 떠났고, 가족들은 꽃봉오리째 대지에 낙화한 동백꽃에 탄식했고, 화가들은 화필을 들었다.

서양화가 한희원(62)의 ‘꽃잎’(1995년 작)도 선운사에서 만난 동백나무숲을 그린 작품이다. 화가는 20여 년 전 스무 명의 동료 작가들과 함께 선운사 동백 숲을 사색하러 갔다가 아름다운 동백꽃에 압도되어 정자 현장에선 스케치 한 장 그리지 못한 채 막걸리 몇 순배에 취해버

렸다고 한다. 가지에 피어있는 꽃 대신 ‘눈물처럼 후두둑’ 은 몸으로 떨어지는 동백꽃 낙화를 마음에 담아 와서 화폭에 재구성했다.

그림 속 선운사 동백 숲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 숲 특유의 분위기로 가득해서 마치 갇힌 어둠 속 두꺼운 동백 이파리 사이로 비추는 햇살과 사방으로 흩날린 동백꽃만이 존재하는 듯하다. 화가는 “숲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줌 햇살이 환정으로 길을 만들고 홀연히 낙화한 동백꽃의 선연함이 붉은 점으로 어우러져 각인되었다”고 들려준다. 단순화된 색채와 세련된 소묘, 치밀하면서도 시정 넘치는 표현은 화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작가의 감수성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다.

최근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재발견되고 있는 양림동이 주목받기 전 그 누구보다 앞서 양림지를 자처했던 화가는 태어나고 그림을 시작했던 그곳에 미술관을 열고 양림의 정신과 예술을 알리고 있다.

〈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·미술사 박사〉

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**조이투어**